

부적합 수입녹용 대량 유통

- 구멍 뚫린 검사제도, 부실한 관리감독, 빈약한 처벌이 만들어낸 합작품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수입녹용'을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제약회사 대표와 수입업자 등 21명이 지난 2월25일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유통시킨 양은 무려 18톤으로 금액으로만 71억4천만원에 달하는 거금이다. 특히 이들은 사슴만성소모성질병으로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녹용까지 수입 판매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수입녹용 중 약 30% 정도가 부적합 판정품으로 폐기 반송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적합 녹용이 이를 무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외형상만으로는 국내산이나 수입산, 적합품이나 부적합품에 큰 차이가 없어 적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외형상만으로는 국내산이나 수입산, 적합품이나 부적합품에 큰 차이가 없어 적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입녹용 불법유통 적발 어려워

이번에 대단위로 적발된 불량 수입녹용 유통업자들도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찰이 추적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녹용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부적합 수입녹용 유통관련 방송 3사 보도 내용

■ MBC 9시 뉴스데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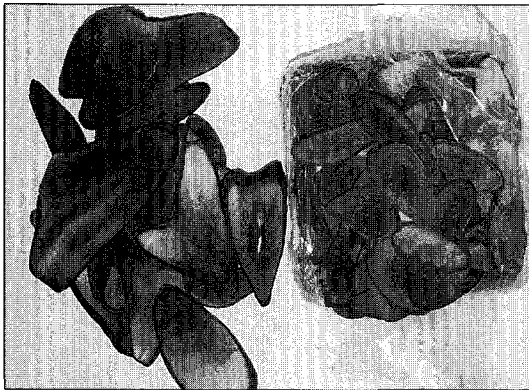
제목 : 저질 녹용 유통

앵커 : 함량이 미달되는 녹용을 수입해서 대량으로 유통시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사슴 광우병으로 수입이 금지된 녹용까지 들여왔고 또 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아왔습니다. 박승진 기자입니다.

기자 : 한약재상이 몰려 있는 서울 경동시장입니다. 품질 좋은 녹용은 1kg에 200만원이 넘는 비싼 값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사슴피 함량이 적어 불에 태웠을 때 재가 많이 나오는 값싼 저질 녹용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약업자 : 일반인들은 모르죠. 눈으로 봐선 모르죠. 밑에는 각질이 많으니깐 (약효가 떨어지는데)

철저한 관리 감독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지난해 불량 수입녹용 유통에 대한 단서를 잡은 경찰청 관계자들은 본회를



▲ 경찰에 의해 압수된 불량 수입녹용으로 외관상 구별이 쉽지 않다.

수시로 방문, 수입녹용 단가 조회 및 식별 방법, 유통 과정 등을 상세히 조사해 왔으며 필요시마다 본회 실무직원이 경찰청 및 관계 기관을 방문하는 등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긴밀히 유지시켜 금번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지난해 수입된 외산 녹용 중 총 21.8톤이 불량 녹용으로 판정 받을 것을

불 때 이번에 적발한 18톤이란 양은 불량 녹용으로 판정 받은 녹용 전량이 사실상 시중에 유통된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대단위 불법 녹용 유통상을 적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녹용 외관만으로 불량품과 합격품 여부를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식별해 내기 어려울뿐더러 유통자체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관상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수입 녹용이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선통관 후검사 제도」 맹점 노려

수입녹용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저질 녹용이 국산으로 둔갑한다면 그 문제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안전성 유무가 판명되지 않은 외산 저질 녹용이 국산으로 둔갑, 소비자 손에 들어간다면

■ MBC 9시 뉴스데스크

기자 : 모 제약회사 대표 유 모씨 등 16명은 이런 점을 악용해 저질 수입녹용을 고급인 것처럼 속여 팔아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입녹용에 대한 검사를 끝내지 않았는데도 봉인을 뜯어버리고 모두 기억원어치나 유통시켰습니다. 유씨는 특히 지난 2000년 12월 사슴광우병 논란으로 수입 금지된 캐나다산 녹용 750kg도 들여와 팔았습니다.

녹용수입업자 : 검사기간이 때로는 40일 이상 걸립니다. 자금은 압박되고 돈은 없는 사람들이 방법은 없죠

기자 : 경찰은 시중의 수입산 가운데 4분의 1 이상은 저질 녹용이라고 밝히고 전국 한약업소와 한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승진입니다.

그 비난의 화살은 고스란히 국내 양륙업자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최초 수입된 녹용이 간단한 관능검사만 거치고 수입업자 손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현 수입녹용의 「선통관 후검사 제도」가 만들어 낸 맹점이다.

「선통관 후검사 제도」란 먼저 수입업자가 국내로 외산 녹용을 반입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능검사 및 중금속 검사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최초 수입된 녹용은 간단한 관능검사(눈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마친 후 약간의 샘플만 정밀검사(회분검사, 중금속 검사 등)를 위해 수거하고 녹용 전량을 수입업자가 인수하게 된다. 수입업자에게 인수된 녹용에는 봉합이나 봉인이 되어 있어 정밀검사가 끝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시중에 유통을 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미 수입업자 손에 들어간 녹용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로 이미 발을 들여놓은 수입녹용은 그 안전성 유무에 관계없이 시중에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져 있는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도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입녹용 검사가 길게는 40일이 걸린다”며 “자금이 압박되어 돈이 없는 사람들은 품질검사 전 녹용을 유통시키는 방법 밖에 도리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사도 되지 않은 녹용이 수입업자 손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녹용 수입업자들이 사슴만성소모성질병으로 인해 캐나다에서는 녹용 수입 자체가 금지되

부적합 수입녹용 유통관련 방송 3사 보도 내용

■ KBS 9시 뉴스

제목 : 불량 수입 녹용 대량 시중 유통

앵커 : 몸에 좋다는 녹용이라고 해서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중 유통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수입 녹용 가운데는 상당수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기자 : 서울 경동의 약령시장입니다. 약재상마다 국산 녹용은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수입산 녹용이 진열돼 있습니다.

판매상 : 거의 다 수입산 취급한다고 보면 되죠.

기자 : 그러나 수입산 녹용 가운데 상당수가 효능이 거의 없는 불량 녹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와 중국 등지에서 불량 녹용을 수입해 시장과 제약회사 등에 팔아 온 수입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수입해 팔아 온 불량 녹용은 2만 1000여 킬로그램으로 77억원어치나 됩니다. 특히 2년 전 사슴광우병이 발병해 수입이

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를 이용, 금지된 녹용까지 수입해 시장에 풀어놓는 대범함을 보인 것은 현 녹용 검사 제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본회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제도적 맹점이 수입녹용의 자유로운 불법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선검사 후통관 제도」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부실한 관리 감독도 원인

이번 사건의 또다른 원인으로는 부적합품 녹용에 대한 사후 관리 부실에도 있다. 식약청은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수입녹용의 반송 및 폐기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수입업자들에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녹용에 대해 30일 이내에 해외반송 또는 폐기 처분하라고 명령했을 뿐 현장 확인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만 해놓고 다시 자유롭게 풀어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 만난 고기'는 일부 몰지각한 수입업자들이다. 녹용 품질은 뒷전이고 더 싸게, 더 많이만 수입하면 돈이 되는 것이다.

수입녹용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은 결국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녹용 유통으로 국민 건강에는 위협을, 불법 유통 녹용 증가로 양록업자들에게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가벼운 처벌, 겁날게 없다

지난해 식약청 서울지방청에서는 수입 의약품에 관해 총 65건의 행정처분을

■ KBS 9시 뉴스

금지된 지역에서 수입한 녹용 1500kg도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식약청 검사결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녹용을 폐기 처분하거나 해외로 반송하지 않고 시중에 팔아 온 것입니다.

피의자 :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동안 벌금 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자 : 약한 처벌 규정과 끝까지 확인을 않는 관계기관의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김호철(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교수): 녹용은 보양의 효과가 있어서 인체에 좋은 효과를 많이 나타내지만 이것이 오래되어서 빠르게 되면 녹각이 되는데 녹각은 보약으로서의 효과가 훨씬 떨어집니다.

기자 :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식약청에서 불량 판정을 내린 수입 녹용 11만 킬로그램 대부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지주입니다.

내렸다. 이중 수입 녹용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20건으로 전체 의약품에 관련된 행정처분 중 31%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은 컸다.(별첨자료 참조) 그만큼 품질이 떨어지는 저질 녹용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부적합품으로 판명된 녹용을 유통시켜도 그 처벌 또한 미미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업체가 많다는 얘기가. 실제로 지난해 서울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20개의 녹용 수입업체 중 대부분이 식약청의 '부적합 녹용의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이행치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행정처분은 고작 전 품목 수입금지 3개월 내지는 6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3개월 혹은 6개월 뒤에는 또다시 녹용에 대한 수입이 자유롭게 허가된다는 얘기가. 녹용 수입은 매일매일 소량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간을 두고 대단위로 수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지시불이행으로 적발

돼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수입업자는 6개월 뒤 또다시 대량으로 녹용을 수입하면 그만이다. 가벼운 형벌이 부적합 저질 녹용 유통을 반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 시급

수입되는 녹용의 30%가 약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부적합품이고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결국 외산 녹용을 구입한 소비자 3명 중 1명 꼴로 안전성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부적합 녹용을 약으로 알고 먹고 있다는 얘기가. 국내 양륙업자 입장에서는 불량 외산 녹용에 소비자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녹용 자체에 대한 불신감 조성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본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오래전부터 식약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녹용 「선통관 후검사 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부적합 수입녹용 유통관련 방송 3사 보도내용

■ SBS 8시 뉴스

제목 : 시중에 불량 녹용 판처... 수입업자 적발

앵커 : 시중에 유통 중인 녹용 가운데 국내산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입 녹용이 대부분인데 문제는 이 가운데 엉터리 불량 녹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흥지만 기자입니다.

기자 : 한약재 판매상들이 모여있는 서울 경동시장. 녹용만 전문으로 파는 한 가게에 들어가 봤습니다.

기자 : 여기 녹용 진짜입니까?

녹용 수입업자 : 전부 다 정품 적합 판정 받은 것입니다.

기자 : 가게안 창고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수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적합 녹용이라고 판정한 봉합과 봉인

히 요구해 왔다. 수입된 외산 녹용이 「선통관 후검사 제도」로 인해 상당량의 부적합품이 폐기·반송되지 않고 유통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원료의약품으로 수입한 생녹용 중 상당량이 국내시장에서 건조 및 규격화하여 한의약업소에 공급할 뿐 아니라 국산으로 위장하여 차량 이동판매하고 있어 국산 생녹용의 품질 실추 및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의 이유로 꼽아 왔다.

따라서 「선통관 후검사 제도」를 「선검사 후통관 제도」로 전환, 외산 수입녹용 통관전 품질(회분함량) 및 안전성(중금속) 검사와 검역(병원감염)후 통관토록 하고 검사 및 검역시 부적격품은 본국 환송 또는 폐기 처리했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인 식약청에서는

아직까지도 현행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사후 관리 감독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부적합품으로 판정만 하고 지시사항의 시행여부를 감시하지 않는다면 품질검사 자체는 무의미해진다. 별도의 사후 관리 감독 기관을 지정해서라도 지시사항의 시행 유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번 사건에 대해 경찰측에서는 부적합품으로 판명된 수입녹용 대부분이 사실상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수입 녹용 검사제도, 부실한 사후관리 감독, 가벼운 처벌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불법 수입녹용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끝내 그 피해는 불량 수입 녹용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다수 국민과 국내 양록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민국양특**

- 손성훈 기자 -

■ SBS 8시 뉴스

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봉인을 뜯자 벌써 반송됐어야 할 불량 녹용들이 우루루 쏟아져 나옵니다.

기자 : 어디서 수입된 것입니까?

유재선/경찰청 특수수사과 : 뉴질랜드 산입니다. 이 녹용들 전부 부적합 판정 받은 것들입니다.

기자 : 경찰은 녹용 수입업자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불량 녹용을 판 수입

업자 3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식약청에서 붙인 봉합과 봉인을 뜯고 판매한 불량 녹용이 무려 18여톤, 돈으로 거억원어치나 됩니다.

피의자 : 우리는 영세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기자 : 경찰 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슴 광우병이 발병한 지역에서 수입한 녹용까지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별첨) 2001년도 의약품 중 수입녹용 행정처분 현황

연번	업 소 명	위반유형	제 품 명	위반내역	처분일자	처분내역	비고
1	동서메디슨(주)	품질관리	녹용	부적합 녹용의 봉합, 봉인 훼손	01. 3.27	경고	
2	(주)영남약업사	약사감시	감초, 녹용, 산조인	비규격상태로 의약 품제조업소가 아닌 자에게 판매함	01. 3.20	판매업무 정지1월	01.03.26 ~ 4.25
3	한국한약 수출입조합	약사감시	녹용, 산조인, 차전자	비규격상태로 의약 품제조업소가 아닌 자에게 판매함	01. 3.20	판매업무 정지1월	01.03.26 ~ 4.25
4	덕흥약업	지시불이행	녹용각(260kg) 녹용각(145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10	전품목수입 금지6월	
5	(주)엠제이 코퍼레이션	지시불이행	녹용(18.5kg) 녹용(600kg) 녹용(6.0kg) 녹용(27kg) 녹용(400kg) 녹용(50kg) 생녹용각(3100kg) 생녹용각(5300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11	전품목수입 금지6월	
6	화영무역	지시불이행	녹용(330kg) 생녹용각(4908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12	전품목수입 금지6월	
7	창제약업	지시불이행	녹용각(100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13	전품목수입 금지6월	
8	영웅무역(주)	지시불이행	녹용각(640kg) 녹용(13.0kg) 녹용(250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15	전품목수입 금지6월	
9	영구무역(주)	지시불이행	녹용각(200kg) 녹용각(400kg) 녹용각(200kg) 녹용각(250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16	전품목수입 금지6월	
10	성은무역(주)	지시불이행	녹용각(280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19	전품목수입 금지6월	

연번	업 소 명	위반유형	제 품 명	위반내역	처분일자	처분내역	비고
11	성보무역(주)	지시불이행	녹용각(200kg) 녹용각(250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20	전품목수입 금지6월	
12	보원무역(주)	지시불이행	녹용(11.4kg) 녹용(234.5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22	전품목수입 금지6월	
13	동제성	지시불이행	녹용각(220kg) 녹용각(192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23	전품목수입 금지6월	
14	동서메디슨(주)	지시불이행	녹용각(300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24	전품목수입 금지6월	
15	대흥유통	지시불이행	녹용각(240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25	전품목수입 금지6월	
16	엘리시안 이우라(주)	지시불이행	녹용(296.35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26	전품목수입 금지6월	
17	영인상사(주)	지시불이행	녹용(200kg) 녹용(400kg) 녹용(1.6kg) 녹용(3.5kg) 녹용(14kg) 녹용(525kg) 녹용(342kg) 녹용(200kg) 녹용(100kg) 녹용(100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27	전품목수입 금지6월	
18	원부무역(주)	지시불이행	녹용(150kg) 녹용각(200kg) 녹용각(507kg) 녹용각(200kg) 녹용각(155kg) 녹용각(192.5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28	전품목수입 금지6월	
19	제일건재약업사	지시불이행	생녹용(3400kg) 녹각(10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0.26	전품목수입 금지6월	
20	보광약업(주)	지시불이행	녹용(6.7kg) 녹용(100kg)	부적합한약재 반송 또는 폐기 등 지시 불이행	01.11.02	전품목수입 금지3월	